숨비소리 낼 때마다 커지는 통증

<우리들의 블루스> 속 해녀들의 삶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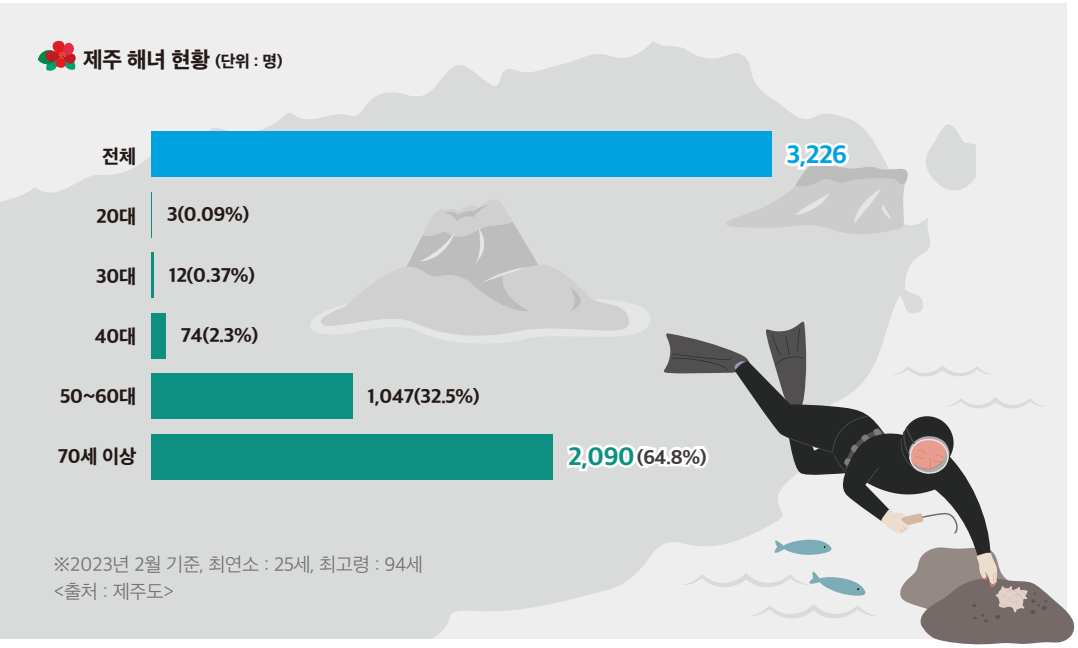
영옥(한지민)은 해녀 학교를 나와 해녀가 얼마 되지 않은 '하군' 해녀다. '대상군' 해녀 춘희(고두심)를 비롯한 다른 해녀 삼춘(제주에서 성별 구분 없이 웃어른을 의미)들이 속한 어촌계에서 해녀들을 배까지 차로 태워다주는 몫까지 담당하며 물질에 재미를 붙이는 중이다. 하지만 영옥을 향한 해녀 삼춘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번 조금씩 늦게 나타나는 행동과 물질 중 욕심을 부리는 게 삼춘들의 눈엣가시가 되어버린 것. 한 번 밉보이니 육지에 서방이 있다,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 애도 몇 번 낳았을 것이라는 둥 영옥을 향한 소문은 거침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해녀 삼춘들은 앞으로 영옥과 물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옥에게 호통을 친다. 영옥이 해녀 삼춘들의 말을 무시하고 물에 깊게 들어가 발이 그물에 걸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영옥을 살리려다 춘희는 물론 해녀 삼춘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한 순간이었다.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보통 해녀는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 제일 물질 잘하고 수확량이 많은 해녀를 대상군이라고 하는데, 대상군은 바람·파도·조류·지형을 읽으며 집단을 이끈다. 해녀들은 물질이 끝나면 대상군 혹은 상군의 지휘 아래 뭍 가로 나가 채취물을 나눈다. 나이와 물질 기량, 덕성에 따라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며 공동체를 이루는데, 둥글게 돌담을 에워싼 형태의 '불턱'은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해녀들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불을 피워 바닷물로 젖은 몸을 덥히며 물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나눴고, 마을 대소사에 관한 의사결정도 내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마을마다 샤워 시설이 갖춰진 탈의장이 설치되면서 불턱은 점차 사라졌지만, 지금도 제주에는 70여 개의 불턱이 남아 있다. 해녀들의 공동체 의식은 '제주 해녀'가 인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관련 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다는 점 외에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점 ▲잠수장비 없이 자연 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물질은 매우 고된 작업으로 해녀의 명맥이 곧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해녀 명맥 위협하는 해녀들의 직업병

대부분 해녀는 일명 '해녀병'이라고 불리는 잠수병을 안고 사는데, 잠수병은 고압의 물속에서 몸 안에 축적된 질소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혈관이나 몸속에 기포를 만들어 생기는 병이다. 기포가 뇌·심장·혈관·관절 등에 모이면서 만성두통과 마비·구토·현기증·관절통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치료법은 최대 7기압의 고압산소를 2시간가량 공급해 체내에 쌓인 질소를 서서히 배출시키는 것인데, 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단 두 곳밖에 없다. 제주도 곳곳에 흩어져 활동하는 해녀들이, 그것도 고령의 해녀들이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명과 난청 또한 해녀들의 지긋지긋한 고질병이다. 수심 20m까지 내려가 각종 해산물을 채취한 후에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한꺼번에 토해낼 때 내는 '호오이 호오이.' 이른바 숨비소리를 낼 때 해녀들은 수압 차이로 인해 귀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숨비소리가 반복되면서 만성두통과 관절통, 이명과 난청을 악화시킨다. 현재 활동 중인 제주 해녀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물질로 인한 통증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2월 기준 제주 해녀는 3,226명이다. 2021년(3,437명), 2020년(3,613명)에 이어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제주 해녀의 64.8%(2,090명)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50세 미만은 89명, 이 중 20대는 3명뿐이다. 매년 100여 명의 해녀가 은퇴하고 있으며, 신규 해녀 가입은 30명을 조금 웃돈다. 제주도는 ▲해녀 학교 2개소 운영 지원 ▲해녀 가입비 지원(1인당 100만 원) ▲40세 미만 신규 해녀 정착금 지원(3년간 월 30만 원) ▲수산종자방류 등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인센티브 부여 등 해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건강권 측면에서의 접근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